

독후활동지 학생용

#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성 : 오요한(정신여자중학교 교사)



## 류명성 통일빵집

박경희 지음

주제어 : 탈북자, 휴머니즘, 성장

서울시교육청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협성문화재단 독후감대회 선정도서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우수문학도서  
청소년 북토크 선정도서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프인들

##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독서 전   독서 준비	1. 책의 내용과 관련한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독서 중   책 속으로	1. 독서 일지 작성하기 -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 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메모하며 읽기  2. 가상 청문회를 통한 소설 내용 파악하기 -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들 뽑기 - 질문을 바탕으로 역할을 맡아 청문회 하기
독서 후   토론과 논술     독후 활동	1. 북한 학생을 위한 단어집 만들기 - 북한말의 특징 정리하기 - ‘글동무’ 앱을 활용하여 단어집 만들기  2.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 이해하기 -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 - 일상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문제점 생각하기 - 역할극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 이해하기  3. 책 안내 소책자 만들기

### 관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 듣기, 말하기 :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 읽기 :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문법 : 남북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 문학 :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관련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

## ● 책 소개 ●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남북한 아이들의 이야기

탈북 모녀와 가족이 되어 가는 주희,  
좌절을 모르는 기철에게 마음이 끌리는 다경,  
세라를 보며 북에 두고 온 동생을 그리워하는 명성,  
남 같지 않은 떠돌이 개 멧구를 데려다 기르는 연미,  
학교 대신 서점에서 지식을 채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은희.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담아낸  
소설.

.....

탈북을 시도한 북한 청소년들, 목숨 걸고 남한에 왔지만 큰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좌절이 끝이 아님을 작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려 냈습니다.

- 김혜자(배우)



## 독서전 독서 준비 : 책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1. '북한'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적어 보고, 내가 평소에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① 북한의 빈 지도에 '북한'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② 위에서 떠올린 단어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단어를 고르고, 그 까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다음은 ‘남북한 통합 한의사 1호’가 된 한 탈북민의 인터뷰 기사 일부입니다. 기사를 바탕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남한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한의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직업을 갖기 위해 진단지 등을 보고 전화를 하면 운전이나 컴퓨터 등을 할 줄 몰라 채용되지 못했다.

대부분 가게에서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했는데 난 정말 다시 연락을 주는 줄 알았다.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이 거절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 당시에는 밤새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를 기다리면서 ‘왜 남한사람들은 거짓말을 할까?’라는 원망과 미움이 커졌었다.

어떻게 하면 정착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한의학을 하는 것뿐이었다.

이후 교육부에서 한국 한의대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지만 자격증 시험은 볼 수 없었다. 복지부에서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 사연이 알려져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까지 서게 됐다.

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새터민들과 또 앞으로 통일되면 만나게 될 북한의 지식인들, 그 사람들에게 대한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다면 북한의 의사도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 3년 만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돼 북한에서의 경력이 한국에서도 인정받게 됐고 개업을 할 수 있었다.

- 경기일보, 2014. 1. 3.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871>)



## 독서 중 책 속으로 : 독서 일지를 작성해 봅시다

1.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메모하며 책을 읽어 봅시다.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까탈을 부리는 세라가 못마땅했다.

“짱 나게 왜 아무거나 시켜? 칼로리 계산해 봐야지.”

세라가 툭 쏘아붙인다. 다이어트 병이 또 도지려나 보다.

‘내 동생은 강냉이죽도 못 먹는데 넌 먹을 게 많아 탈이구나. 그런데 장 사장님은 왜 언락이 없는 걸까?’

옥련 생각이 나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색삼 어땡슴?”

나는 옥련이 좋아했던 음식을 말하며 세라가 보던 메뉴판을 빼앗았다.

“색삼이 뭔데?”

“참, 여기서 계란말이라고 하지? 계란말이 싫음?”

“싫어! 계란말이도 100칼로리가 넘어.”

세라가 내 손에 들린 메뉴판을 다시 뺏어갔다.

“그놈의 칼로리 타령!”

세라가 처음 빵집에 온 날 나는 깜짝 놀랐다. 북에 두고 온 옥련을 빼닮았기 때문이다. 하얀 피부에 열은 쌍꺼풀은 물론 보조개까지 완전 복사판이었다. 그래서인지 난 세라가 까들랑거려도 예뻐다. 무엇보다 세라는 옥련과 달리 통통하고 키가 커서 좋았다. 세라는 통통하다는 말을 끄찍이 싫어하지만.

자기 식구들 끼니도 어렵다고 옥련을 탐탁지 않아 했던 삼촌의 얼굴과 함께 꽃제비 생활을 했던 고단한 기억이 떠올랐다.

“정신 차리라우. 종점이라 말이다.”

돼지풀죽마저도 먹을 수 없게 되자 나는 옥련을 데리고 모산행 열차를 탔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 돌아가시지 전에 가 본 곳이었다.

“오빠, 배고파…….”

아무리 장마당을 돌아다녀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은 없었다. 끈기 없는 강냉이국수라도 먹을 수 있었다면 동냥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옥련은 병든 닭처럼 아무 데서나 푹 고꾸라지곤 했다. 몸도 약한 데다 허기진 배를 물로만 채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어야 살 수 있었다.

부모님께 반찬 투정을 하고, 급식을 남기던 내 모습이 문득 부끄럽게 느껴진다.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꽃제비 출신 탈북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

‘색삼, 까들랑거려다, 꽃제비, 장마당’ 등과 같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류명성 통일빵집> (p.13~14) 중에서

2.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자신의 경험을 독서 일지에 정리해 봅시다.

독서 일지

읽은 날짜	책 제목	작가	읽은 쪽수
	류명성 통일빵집	박경희	~
책을 읽으며 정리한 내용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책 속의 내용과 연관된 세상일			



## 독서 중 책 속으로 : 가상 청문회를 통한 소설 내용 파악하기

1. 이 책은 <류명성 통일빵집>을 포함해 총 6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친구들과 독서 일지를 통해 작성한 질문을 아래의 질문판에 소설별로 정리해 봅시다.

### | 질문판 |

소설 제목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류명성 통일빵집 - 명성과 세라	
빨래 - 주희와 연속	
오뎅이 열쇠고리 - 기철과 다경	
아바이순대 - 연미와 명구	
자그사니 - 강희와 애심	
책 도둑 - 은휘와 아저씨	



2. 모둠 친구들과 질문판에 정리한 질문을 <자료>를 참고하여 나누어 보고, 각 소설의 내용 파악과 관련된 질문을 뽑아 봅시다.

<자료>

<p><b>글쓴이에 대한 질문</b> - 창작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p> <p>예) · 작가의 다른 작품은 어떤 내용일까? · 작가는 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창작했을까?</p>	<p><b>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b> -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한 질문</p> <p>예) ·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 등장인물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p>
<p><b>독자에 대한 질문</b> - 독자가 자신의 입장에 글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p> <p>예) · 내가 소설 속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 내가 이 소설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p>	<p><b>맥락에 대한 질문</b> - 글이 어떤 상황에서 읽히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질문</p> <p>예) · 다른 사람들은 이 소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p>

3. 2에서 선정한 질문을 바탕으로 각 소설의 내용 파악을 확인하기 위한 가상 청문회 활동을 해 봅시다.

① 가상 청문회에서 맡을 역할을 정해 봅시다.

역할	활동 내용	담당자
사회자	청문회 진행 (청문회의 목적 안내, 질문자와 답변자 소개 등)	
질문자	모둠에서 선정한 질문을 정리하며 답변자에게 질문	
답변자	질문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기	

② 원탁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잘 이야기한 토론자를 뽑아 보고, 그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 순서>

- 사회자는 청문회의 시작을 알리고, 질문자와 답변자를 소개합니다.
- 질문자는 소설의 내용 파악과 관련된 질문을 정리하여 답변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자는 역할에 맞게 성실하게 답합니다.
- 다른 모둠의 친구들은 활동을 경청합니다.



## 독서 후 토론과 논술 : 북한 학생을 위한 단어집 만들기

1. 다음과 같이 책 속에는 북한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철이의 말을 바탕으로 북한말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살양말만 신고 다님 좋지 않니? 서울도 북한 못지않게 추운데.”  
 기철이가 내 종아리를 보며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북에서는 스타킹을 살양말이라고 하나 봐? 지난번에 다이어트를 살갓이라고 하더니. 내가 살갓이를 해서 살양말 신고 각선미 자랑하려고 멋 좀 부렸지.”  
 내가 기철이의 말을 흉내 내며 놀렸다.  
 “맞다, 스타킹이지. 영어가 영 입에 붙지 않아서 말이야.”  
 기철이는 얼굴까지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그 모습을 보니 은근히 더 놀려 주고 싶었다.  
 “여기 말이 그렇게 어려워? 그럼 담탱이, 꾀대, 짹새, 식후땡. 이런 말은 전혀 모르겠네.”  
 내가 샅샅거리며 물었다.  
 “그거 은어라는 거지? 북에서도 은어를 간간히 쓰긴 해. 선생님을 쌤코, 아빠를 떼박, 엄마를 쯤마이, 담배는 뽀디.”  
 “정말? 북한에선 은어가 아예 없는 줄 알았어.”  
 “북한은 러시아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야. 영어는 절대 못 쓰게 하고, 난 남한에 내려와서 제일 힘든 게 영어였어. 처음 강남역에 나갔는데 서울이 아닌 줄 알았다니까. 온통 영어 간판에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 커피란 말도 몰랐으니까. 지금은 네 덕분에 남한 말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 <오뚝이 열쇠고리>(p.73~74) 중에서

---

---

---

---

---

---


---

---

---

---

2. 다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글동무’ 사이트(www.geuldongmu.org)를 활용하여, 북한 학생들을 위한 단어집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서 불구하고, 탈북 주민들 상당수는 남한어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글동무’는 남한어를 북한어로 바꿔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질화된 남북한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통일교육원(2018),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

- ① 평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북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 ② ①에서 떠올린 단어를 외래어나 한자어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해 봅시다.

단어	뜻풀이

- ③ ②에서 정리한 내용과 ‘글동무’를 활용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북한 학생들을 위한 단어집을 만들어 봅시다.

<예시>

다이어트[diet]

북한어/ 쉬운 표현 : 살깎이

뜻 : 몸무게를 줄이거나, 건강을 위해서 끼니로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비슷한 말 : 식이요법

\_\_\_\_\_

북한어/ 쉬운 표현 :

뜻 :

비슷한 말 :

\_\_\_\_\_

북한어/ 쉬운 표현 :

뜻 :

비슷한 말 :

## 독서 후 토론과 논술 : 북한 이탈 주민의 상황 이해하기

1. 다음 장면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찾고, '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를 준비해 봅시다.

얼마 전에 부반장과 함께 조별 팀이 된 적이 있다. 그런데 부반장과 아이들의 행동이 이상했다. 서로 웃고 떠들다가도 나만 가면 슬슬 자리를 피했다. 그러고는 흘끔흘끔 나를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속닥거렸다. 결국 조별 연구 내용을 같이 써야 하는 데서 나는 제외됐다. 말로만 듣던 왕따를 온몸으로 당한 셈이다. 그때의 막막함이란.

“재 북한에서 특목고 다녔대. 왜 하필 재가 우리 반이니. 내신 일 점이 우린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아이들이 고개를 맞대고 떠들었다. 나는 그제야 담임 선생님이 나를 소개할 때 했던 말이 생각났다.

“힘들게 북에서 온 친구가 우리 반이 되었다. 수재 소리를 듣던 학생이란다. 여러모로 낯설 테니 여러 분이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

아이들은 이상하게 냉랭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왜 나를 피하는지 알 것 같았다.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은 것이다. 나는 지금 진도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실력인데 걱정을 하다니. 기가 막혔다.

북한과 남한은 교과과정 자체가 다르다. 내가 아무리 북에서 수재 소리를 들었다 해도 이곳의 모든 교육과정은 처음 접하는 것이라 힘들다. 특히 영어는 더하다. 내가 다닌 특목고에서는 영어의 ABCD 정도만 배웠다. 남한의 초등학교 수준도 못 미치는 실력이다. 나는 커피라든가 레스토랑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 애를 먹었다. 북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이다. 이런 나를 경쟁자로 여기다니 말도 안 된다.

- <책 도둑>(p.157~158) 중에서

- ① 문제 상황의 원인을 찾아보고, '나'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 ② '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를 준비해 봅시다. 아래의 대상에서 한 사람을 고르거나 새로운 대상을 추가하여, 그 대상에게 '나'의 입장을 설명해 봅시다.

담임 선생님

부반장

엄마

나의 입장 :

2. 다음은 탈북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탈북 청소년뿐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너무 외롭다.  
 가끔 복도에서 언니를 만나면 알은체하고 싶은데 언니가 싫어한다.  
 왕따인 나는 언니에게 해만 되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나.  
 힘들다, 거친 물살의 두만강을 건널 때보다 더.

- <빨래>(p52) 중에서

“김기철, 탈북자네. 혹 가해자들과 원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보복을 당할 일이 있다든지, 탈북자 끼리 등쳐 먹다 칼부림하는 일이 부지기수고. 북한에서 사고 치고 남한으로 도망친 탈북자들이 많으니…….”

형사가 연신 이죽거렸다. 사람을 앞에 놓고 너무한다 싶었다.

- <오뎅이 열쇠고리>(p70) 중에서

“나 같은 탈북자는 조선족보다 더 무시당하고, 억이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 네가 나한테 잘해 주는 것도 이상하고, 너도 언젠가는 내가 너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 <오뎅이 열쇠고리>(p72-73) 중에서

“북한은 러시아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야. 영어는 절대 못 쓰게 하고. 난 남한에 내려와서 제일 힘든 게 영어였어. 처음 강남역에 나갔는데 서울이 아닌 줄 알았대니까. 온통 영어 간판에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 커피란 말도 몰랐으니까. 지금은 네 덕분에 남한 말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 <오뎅이 열쇠고리>(p74) 중에서

- ① 본문에 담긴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북한 이탈 주민이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② ①에서 떠올린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역할극을 만들어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구체적인 상황	
등장인물	
역할극 대본	
문제 해결 방법	



## 독서 후 독후 활동 : 책 안내 소책자 만들기

\* 가장 인상적인 작품을 고르고, 그 소설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봅시다.

1. 이 책에 수록된 6편의 단편 소설 중 가장 인상적인 소설을 한 편 고르고,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고른 소설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예시>

### 소설 제목

류명성 통일빵집

### 등장인물 소개

명성 : 탈북하여 빵집 빵을 만드는 일을 한다.  
세라를 보며 북에 두고 온 동생을 그리워한다.

세라 : '대박'을 꿈꾸는 모델 지망생으로 명성과 같은 빵집에서 일한다.

옥련 : 명성과 헤어져 북한에 남아 있는 명성의 여동생이다.

### 소설 속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

나는 검정고시 학원도 못 나가고 있다. 한 푼이라도 모으기 위해 학원을 그만뒀다. 대신 줄릴 때마다 옥련을 생각하며 밤늦도록 교육방송을 듣고 있다.

“내 동생이 온…… 다……. 드디어 탈출했다…….”

### 소설을 추천하는 글

죽음 같은 탈북을 시도한 북한 청소년들, 목숨 걸고 남한을 찾아왔지만 또 한 번 큰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좌절이 끝이 아님을 박경희 작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려 냈습니다.

- 김혜자(배우)

### 소설을 추천하는 글



꽃제비를 아시나요?

「꽃제비」는 먹고 잘 곳이 없어 떼 지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거나 소매치기를 하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

---

<b>소설 제목</b> <input type="text"/>	<b>소설을 추천하는 글</b> <input type="text"/>
<b>등장인물 소개</b> <input type="text"/>	<b>소설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글</b> <input type="text"/>
<b>소설 속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b> <input type="text"/>	...

2. 1에서 정리한 내용과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소책자의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하고, 소책자를 만들어 봅시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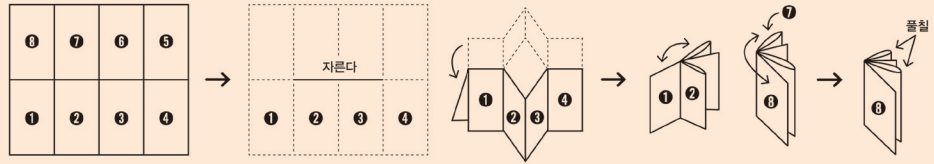
① 준비물

교사 : 8절지(색지), 꾸미기 도구(칼, 가위, 색연필)

학생 : 책, 독서 일지, 책을 읽으며 작성한 메모

② 책 만드는 법

- ① 8절지 색지를 그림과 같이 8등분이 되도록 접는다.
- ② 가운데 ②, ③번 윗부분을 칼로 가른다.
- ③ ②, ③번 위가 벌어지도록 종이를 접는다.
- ④ ⑧번이 앞표지, ⑦번이 뒤표지가 되도록 접고, 벌어진 부분은 풀칠하여 완성한다.



③ 소책자 구성 요소

- ① 앞표지(⑧번): 소설의 제목과 작가
- ② 1~6쪽: 소설을 소개하는 내용
- ③ 뒤표지(⑦번): 학번과 이름

[1쪽] 등장인물 소개

[2쪽]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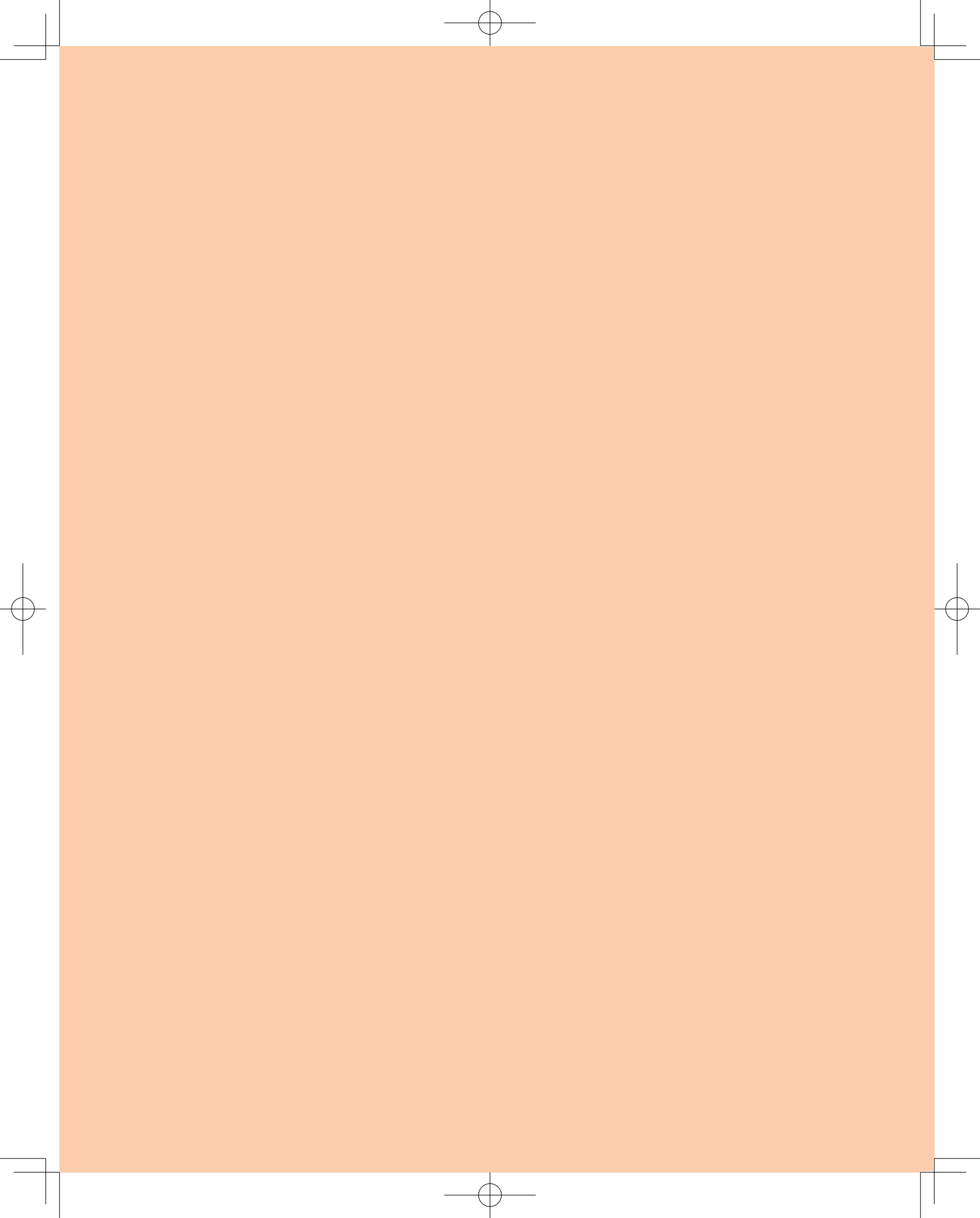
[4쪽]

[5쪽]

[6쪽]

[7쪽]

[8쪽]



뜨인돌

www.ddstone.com

뜨인돌출판(주)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7-9

전화 (02)337-5252 | 팩스 (031)947-5868

뜨인돌 블로그 [blog.naver.com/ddstone1994](http://blog.naver.com/ddstone1994)

뜨인돌 페이스북 [www.facebook.com/ddstone1994](http://www.facebook.com/ddstone1994)

노빈손 [www.nobinson.com](http://www.nobinson.com)